

諧聲字의 한국한자음 초성에 나타난 諧聲通轉 考察*

나도원**

〈목 차〉

- I. 들어가기
 - II. 上古漢字音의 相互 諧聲現象
 - 1. 상호 諧聲의 일반규율
 - 2. 한국 諧聲字들의 諧聲 字母 대응관계
 - III. 한국 한자음의 諧聲 대응관계 실례
 - 1. 한국 한자음의 일반적 諧聲通轉 현상
 - 2. 한국 한자음의 특수한 諧聲通轉 현상
 - IV. 나가기
-

I. 들어가기

‘諧聲通轉條例’란 중국 성운학에서 上古 聲母를 재구해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上古 聲母를 재구해내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中古 聲母의 재구음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만 이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는 바로 해성자에 근거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즉, 중고 성모 중에서 어느 성모가 서로 해성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역으로 상고의 성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각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조합하여 몇 가지 규율을 만든 것이 ‘諧聲通轉條例’이다. 해성자와 그 聲符는 아마도 글자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독음이 같거나 분명 매우 비슷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성자를 이용하면 글자가 만들어졌을 때의 언어체계를 알 수 있다. 즉, 해성자의 말소리체계와 《시경》의 말소리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의(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2-A00040)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체계는 대체로 일치하는데 예를 들면 “ㅅ”를 구성요소로 하는 글자들 “怡, 貽, 詒, 飴, 治, 始, 筴, 胎, 苔, 抬, 怠, 殆, 迨, 給, 駘” 등은 현재의 독음이 ‘이’, ‘치’, ‘시’, ‘태’ 등으로 비록 서로 다르지만 상고시대의 음은 틀림없이 이렇게 많이 나누어지지 않고 서로 비슷하였거나 같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 따라서 같은 소리부를 구성요소로 하는 글자들의 독음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상고시기의 한자음 체계와 중고시기 발음의 변화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한자를 수입한 한국의 한자음 사이에도 이러한 해성자들간의 通轉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국의 한자음이 중국의 어느 시기 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에 대해 박병채는 한국 한자음의 기원적 모태를 6~7세기 中原音을 대표하는 切韻音이 국어 한자음의 형성에 결정적인 구실을 한 것으로 보았으며 여기에 일부 吳方言이 가미된 江東音이 그 속에 깔려 있다고 보는 6~7세기 절운음계의 ‘北方中原音母胎說’을 주장하였다.²⁾ 한자가 중국에서 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음의 원형이 그대로 현재에 전해지긴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이란 언어환경 속에서 입말음과의 영향, 속음의 영향과 오독음 역시 그대로 한국한자음 속에 혼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성자의 한국한자음을 중심으로 성운의 통전 현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한자음은 중고시기 한자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고 또한 상고음의 잔재 역시 남아있기 때문에³⁾ 이미 한자음이 많이 변화한 중국의 한어병음보다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주변 한자사용국의 한자음은 성운학 연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동일한 소리부를 해성자로 가지는 한자들의 한국음을 살펴보고 이들의 독음 간에도 중고성모의 ‘諧聲通轉條例’ 현상에 부합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한자음들은 근래에 전해져 왔거나 혹은 잘못 오독되었거나 혹은 상고음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에 대해 제기해보자 한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한자들은 한글어문학회에서 주관하는 한자검정시험 1급 시험 3500자의 해성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리 기초자를 추출하고 이를 출현 빈도수

1) 임도·진경생, 《음운학개요》(북경, 상무인서관, 2008), 73쪽 참조.

2) 박병채, 《한국 한자음의 모태와 변천》, 10쪽.

3) 정경일, 《한국운서의 이해》(서울, 아카넷, 2003), 5-7쪽 참조.

에 따라 100위까지 선정한 한자로 구성된 965개의 해성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⁴⁾

II. 上古漢字音의 相互 諧聲 現象

1. 상호 諧聲의 일반 규율

중국에서의 성운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그 시기를 상고한어, 중고한어, 근대한어, 현대한어로 나눈다. 상고한어는 周秦 兩漢 시대를 말하며, 《詩經》을 음운연구의 대표 자료로 삼는다. 중고한어는 南北朝 隋·唐 시대를 말하며, 《廣韻》을 음운연구의 대표 자료로 삼는다. 근대한어는 宋·元·明·清 시대를 말하며 《中原音韻》이 대표 연구 자료이다. 한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소리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재구해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周秦 兩漢시대의 상고 한어음은 시대적 거리와 현존하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자들 간의 의견도 분분하다. 상고 한어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詩經》, 《尙書》, 《楚辭》와 같은 운문의 압운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형성자의 해성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형성자는 소리부와 의미부가 합쳐져 만들어진 것으로, 같은 소리부를 가진 글자들은 독음이 대부분 같거나 매우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서로 해성하는 관계에 있는 글자들을 정리하여 이로부터 상고음을 재구해내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通假字나 고문헌의 “直音法” 등을 이용하여 상고음을 재구해 내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자가 물론 국어와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한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록의 수단이었지 일상 생활언어가 아니었으므로 중국의 음운변화의 속도와 비교해보면 대부분 전래되었을 당시의 중고 한어음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해성자들을 살펴보면 중국 성운학에

4)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빈도수 100위에 속한 한자 965자는 줄고 〈한자학습에 중심이 되는 기초자 고찰〉, 《중국언어연구》 제32집에서 추출한 상위 100자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둔다.

서 상고한자음을 재구하기 위해 해성한 방법을 귀납하고 있는 규칙들에 거의 부합되는 독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성운학자들이 고문헌과 《시경》 등의 해성자들을 연구하여 상호 해성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해 몇 가지 종류로 귀납하였는데⁵⁾,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열음, 파열마찰음의 각 조 내에서는 서로 통전된다. 각 조들 상호간의 해성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No	해성관계	국제음표
1	“幫, 滂, 並”(“非, 敷, 奉” 포함) 간의 상호 해성한다.	p, p ^h , b(f, f ^h , v)
2	“端, 透, 定” “知, 徹, 澄” “章, 昌, 船” 간의 상호해성한다.	t, t ^h , d ⇔ t̥, t̥ ^h , d ⇔ t̃, t̃ ^h , dz
3	“精, 清, 從” “莊, 初, 崇” 간의 상호해성한다.	t̃, t̃ ^h , dz ⇔ t̃ʃ, t̃ʃ ^h , dʒ
4	“見, 溪, 群” “影, 曉, 匣, 余” 간의 상호해성한다.	k, k ^h , g ⇔ ʔ, x, ɣ, j
5	“章”조에는 “見”조와 서로 해성하는 것이 있다.	t̃, t̃ ^h , dz ⇔ k, k ^h , g

둘째,鼻音과 같은 부위의 파열음이 가끔 통전되지만 그다지 긴밀하지는 않다.

No	해성관계	국제음표
1	“明”(“微” 포함)는 주로 혼자 해성하지만 간혹 “幫, 滂, 並”(“非, 敷, 奉” 포함)과 상호해성한다.	m, m̥ ⇔ p, p ^h , b(f, f ^h , v)
2	“疑”는 주로 혼자 해성하지만 간혹 “見, 溪, 群”과 상호해성한다.	ŋ ⇔ k, k ^h , g
3	“泥, 娘, 日” 간의 상호해성한다.	n ⇔ n̥ ⇔ n̥z

5) 林燾·耿振生, 《音韻學概要》(북경, 商務印書館, 2008), 245쪽. 각 학자들마다 사용하는 대표 성모지는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색마찰음 莊, 初, 崇, 章, 昌, 船와 마찰음 心, 邪, 山, 書, 禪, 후음 匣, 余가 조금씩 다르다. 본고에서 밝힌 바처럼 이 도표는 林燾와 耿振生の 《音韻學概要》의 설명에 따라 작성한 것인데,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였다.

2. 한국 諧聲字들의 諧聲 字母 대응관계

언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전래 이후 그 해당지역의 언어환경에서 현지화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 운서 편찬자들은 중국의 음을 표준음으로 여기고 한국에 와서 변화한 우리의 음은 모두 전외된 것으로 여겨 운서를 편찬할 때 끊임없이 중국음에 맞추고자 노력하였다.⁶⁾ 그래서 당시 운서에 반영된 한자음은 대부분 실용음이었다기보다는 규범음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운서의 편찬자가 규범음을 정하여 놓는다 하여도 결국은 실제 생활에서는 한국의 음운체계와 관습음 등의 영향으로 한국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⁷⁾ 이 외에도 한국에서 중국의 어느 운서를 한자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조선 초기에 중국운서 역사에서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 《홍무정운》을 중국 한자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과학적이거나 학문적인 기준보다는 간혹 정치적 혹은 주관적 관점이 작용했었다.

우리나라의 고대 국어의 음운체계를 연구해보면 중고 漢語音에 대한 설두음과 설상음·중순음, 경순음·치두음, 정치음의 구별은 국어 한자음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시되었으며, 국어의 음운적 특질에 따라 포괄적으로 단일 화 되었다.⁸⁾ 이는 《동국정운》의 서문에서 우리나라 국어음의 특징을 밝히면서 이미 설명한 부분이기도 하다.⁹⁾ 즉, 설음과 순음, 치음은 모두 ‘ㄷ’, ‘ㄷ’, ‘ㄷ’, ‘ㄷ’, ‘ㄷ’로 단순 통합되어 한자음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청음과 탁음의 구별도 완전히 무시되었기 때문에 한국 한자음에서 /v/나 /p/, /p’/는 모두 ‘ㅂ’이나 ‘ㅍ’으로 표시된다.

또한 한자음에서 유기음과 무기음으로 구별되는 변별적 자질도 우리나라의 한자

6) 박성원, 《華東正音》凡例: 「我音初聲本與華同, 不同者中聲, 而我音又多變訛, 並與初聲而不同者間亦有之. 今以字書等反切釋之, 則無不脗合. 故一從初聲之同華者定音.」

7) 이돈주 교수는 한국 한자음의 성립 과정에서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네 가지로 파악하고 있는데 첫째, 본래의 중국 한자음이 우리 고유어의 음운 체계와 그 변화에 수반해서 일어난 역사적 변화로서의 내적 요인, 둘째, 텍스트로 이용된 중국 측 운서 체계에 맞추어 한국 한자음을 교정코자 한 인위적 노력으로서의 외적 요인, 셋째, 한자 학습과정에서 타성이 빛은 과오와 유추의 요인, 넷째 기타의 요인으로 보았다. (李敦株, 〈한국 한자음의 특성〉; 《새국어생활》 2001년, 11집)

8) 박병채, 〈고대국어의 音韻體系 再構 試論〉; 《民族文化研究》, no5, 1971.

9) “如舌頭舌上脣重脣輕齒斗正齒之類, 於我國字音, 未可分辨.”

음에서는 크게 변별작용을 하지 않고 서로 섞여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어음에서는 분명 변별적 자질을 가지는 유기음과 무기음이 한자를 받아들일 때는 서로 뒤섞여 실제 한자음의 무기음이 유기음으로 바뀌거나 유기음이 무기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특히 우리나라 한자음 중에서 牙音의 유기음은 快·儉·噲·夬·篋 말고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박병채 교수의 한자음과 한글음 대응관계에 대한 도표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見: ㄱ, 溪: ㄱ¹⁰), 群: ㄱ, 端: ㄷ/ㅌ, 透: ㅌ/ㄷ, 定: ㄷ/ㅌ, 知: ㄷ/ㅌ, 徹: ㅌ/ㄷ, 澄: ㄷ/ㅌ, 幫: ㅍ/ㅂ, 滂: ㅍ/ㅂ, 並: ㅍ/ㅂ, 非: ㅍ/ㅂ, 敷: ㅍ/ㅂ, 奉: ㅍ/ㅂ, 精: ㅈ/ㅊ, 清: ㅈ/ㅊ, 從: ㅈ/ㅊ, 莊: ㅈ/ㅊ, 初: ㅈ/ㅊ, 崇: ㅈ/ㅊ, 章: ㅈ/ㅊ, 昌: ㅈ/ㅊ, 船: ㅈ/ㅊ, 心: ㅅ, 邪: ㅅ, 山: ㅅ, 書: ㅅ, 禪: ㅅ, 明: ㅁ, 疑: ㅇ, 泥: ㄴ, 娘: ㄴ, 來: ㄴ, 影: ㅇ, 曉: ㅎ, 匣: ㅎ, 余: ㅇ, 日: △/ㅇ¹¹)

따라서 중국 중고성모의 諧聲字 通轉현상을 우리나라의 국어음에 맞추어 표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열음과 파열마찰음

- (1) ㅂ ⇔ ㅍ
- (2) ㄷ ⇔ ㅌ ⇔ ㅈ ⇔ ㅊ ⇔ ㅅ
- (3) ㅈ ⇔ ㅊ ⇔ ㅅ
- (4) ㄱ ⇔ ㅋ ⇔ ㅇ ⇔ ㅎ
- (5) ㅈ, ㅊ, ㅅ ⇔ ㄱ, ㅋ, ㅇ

둘째, 비음과 같은 부위 파열음

- (1) ㅁ ⇔ ㅂ, ㅍ
- (2) ㅇ ⇔ ㄱ, ㅋ

10) 박병채 교수는 溪성모의 음가를 /k/라 하고 우리나라 한글음 ‘ㄱ’과만 대응시켰는데 이는 잘못된 것 같다. 비록 한자음 표기에서 ‘ㄱ’은 ‘快’의 몇 가지에 불과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면 여기서 ‘ㄱ’으로 대응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박병채: 1971, 62~63쪽)

11) 박병채 교수는 우리나라의 한글자모 “ㅇ”으로 표기되는 疑모는 한글 초성에서 鼻音성을 상실하여 /j/(喻母)로 대체되었으며, “△”으로 표기되는 日母는 z-와 o로 유동되어 nz/zj로 유동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한글로 표기하면 ㅅ과 ㅇ으로 표기된다. (박병채: 1971, 62~63쪽)

- (3) ㄴ ⇔ ㅇ, ㅅ
 셋째, 마찰음
 (1) ㅅ, ㅎ ⇔ ㄷ, ㅌ, ㅇ, ㅈ, ㅊ, ㅋ, ㆁ
 넷째, 변음
 (1) ㄹ ⇔ ㅂ, ㅍ, ㄷ, ㅌ, ㅈ, ㅊ, ㅋ, ㅇ
 다섯째, 이모
 (1) ㅇ ⇔ ㄷ, ㅌ, ㅈ, ㅊ, ㅋ, ㆁ, ㄹ

Ⅲ. 한국 한자음의 諧聲 대응관계 실례

1. 한국 한자음의 일반적 諧聲通轉 현상

1) 파열음과 파열마찰음

소리부	해성자
甫(幫:보)	輔(並:보) ¹²⁾ 浦(滂:포)捕(並:포)鋪(滂·並:포)匍(並:포)哺(並:포) 圃(幫:포)脯(幫:포)逋(幫:포)補(幫:보)葡蒲(並:포)專(滂:부) 傅(幫:부)賄(並:부)敷(滂:부)膊縛(並:박)搏(幫:박)博簿(並:부)薄
非(幫:비)	非(幫:비)俳(並:배)排(並:배)俳(並:배)悲(비)匪(비)緋(비)誹(비) 蜚(비)裨(배)輩(배)扉(비)翡(비)
方(幫·並:방)	芳妨防(並:방)房(並:방)放(幫:방)紡訪坊(幫:방)(並:방)彷彿(滂:방) 旁枋(幫:방)昉肪(並:방)傍(並:방)榜謗(滂:방)
白(並:백)	白(並:백)百伯迫(박)拍(박)泊貊(明:맥)柏(백)粕珀(박)舶(박) 帛(백)魄(백)碧(벽)箔(박)藥(以:약)
辟(幫·並:벽)	僻(滂·並:벽)壁(幫:벽)劈(滂:벽)擊璧(幫:벽)癖(滂:벽)闞(並:벽) 臂(幫:비)譬避(並:피)
番(幫·並·滂:번)	番(滂:번)(並:번)潘(滂:반)幡(並:반)幡(並:반)飜(滂:번)蕃(幫:번) 審(書:심)播(幫:파)藩(並:번)(幫:번)藩(昌:심)
比(幫·並:비)	批(滂:비)毘毗(幫:비)庇毘(並:비)毖(幫:비)砒砒(幫:비)陛(並:폐)
皮(並:피)	波(파)破(파)頗(파)坡(파)婆(파)跛(피)彼(피)疲(피)被(피)披(피)

包(幫:포)	抱(포)胞(포)砲(포)飽(포)咆(포)庖(포)泡(포)庖(포)袍(포)鮑(포)
分(幫:분)	頒(반)粉(분)紛(분)吩(분)忿(분)扮(분)芬(분)盆(분)雰(분)貧(빈)
付(幫:부)	府(부)附(부)符(부)咐(부)駙(부)腐(부)俯(부)腑(부)
卑(幫:비)	婢(비)碑(幫:비)痺(비)脾(비)裨(비)牌(비)穽(비)穽(비)
音(幫:부)	倍(배)培(배)賠(배)陪(배)菩(보)部(부)剖(부)
反(幫:반)	返(幫:반)飯(반)板(幫:판)版(幫:판)販(幫:판)阪(幫:판)
富(幫:부)	福(부)匍(부)幅(幫:복)副(부)幅(幫:복)
票(幫:표)	漂(滂:표)標(幫:표)剽(滂:표)標(滂:표)飄(並:표)
扁(幫:편)	偏(편)遍(편)篇(편)編(편)騙(편)
必(幫:필)	必(幫:필)密(明:밀)蜜(明:밀)謚(明:밀)祕(幫:비)瑟(生:슬) 泌(幫:필)
古(見:고)	姑(見:고)枯(溪:고)故(見:고)固(見:고)拈(匣:호)胡(匣:호) 辜(溪:고)倨(見:개)箇(見:개)痼(見:고)錮(見:고)湖(匣:호) 瑚(匣:호)糊(匣:호)
工(見:공)	江(강)功(공)攻(공)空(공)貢(공)缸(匣:항)肛(曉:항)紅(匣:홍) 鴻(匣:홍)虹(匣:홍)訶(匣:홍)項(匣:항)鞏(見:공)恐(공)腔(강)
圭(見:규)	佳(見:가)桂(계)卦(괘)閨(見:규)奎(見:규)珪(見:규)硅(규)街(가) 掛(괘)罨(괘)涯(疑:애)崖(疑:애)
干(見:간)	刊(간)肝(간)奸(간)杆(간)竿(간)汗(匣:한)旱(匣:한)罕(한) 軒(曉:헌)悍(匣:한)岸(疑:안)澣(匣:한)
交(見:교)	郊(見:교)校(見:교)絞(見:교)較(見:교)咬(見:교)狡(교)皎(교)蛟(교) 效(匣:효)
高(見:고)	稿(고)敲(溪:고)膏(見:고)毫(匣:호)鎬(匣:호)豪(匣:호)嘯(匣:호) 濠(匣:호)壕(匣:호)
告(見:고)	鵠(匣:곡)桔(見:곡)造(從:조)浩(見:匣:호)皓(匣:호)皓(호) 醕(溪:혹)漕(호)
今(見:금)	今(見:금)琴(群:금)衾(溪:금)矜(見:금)念(泥:념)吟(疑:음) 陰(影:음)貪(透:탐)含(匣:함)蔭(影:음)
可(溪:가)	哥(見:가)柯(見:가)呵(曉:가)阿(影:아)何(匣:하)河(匣:하)歌(가) 荷(匣:하)
艮(見:간)	艱(간)根(근)眼(疑:안)銀(疑:은)垠(疑:은)恨(匣:한)限(匣:한) 痕(匣:흔)
徑(見:경)	徑(경)經(경)輕(경)瘳(경)莖(경)頸(경)脛(경)勁(경)
加(見:가)	架(가)伽(가)嘉(가)袞(가)迦(가)駕(가)賀(匣:하)
觀(見:관)	灌(見:관)勸(溪:권)權(群:권)顴(群:권)歡(曉:환)驪(曉:환)

句(見:群:구)	苟(見:구)拘(구)狗(구)枸(구)駒(구)鉤(구)
喬(見:群:교)	僑(교)橋(교)矯(교)嬌(교)輻(교)驕(교)
其(見:群:기)	其(見:群:기)基(見:기)棋(기)欺(溪:기)期(群:기)旗(群:기) 其(見:기)淇(群:기)琪(群:기)
夾(見:협)	陝(匣:협)峽(匣:협)俠(匣:협)挾(匣:협)狹(匣:협)頰(見:협)
鬼(見:귀)	鬼(見:귀)傀(괴)塊(괴)愧(괴)槐(괴)魁(괴)蒐(生:수)箕(見:기) 騏(群:기)麒(群:기)斯(心:사)
奇(群:기)	寄(기)騎(기)崎(기)琦(기)綺(기)畸(기)倚(의)
堇(群:見:근)	僅(群:근)勤(근)謹(근)僅(근)瑾(근)覲(근)饉(근)歎(透:단) 漢(曉:한)灘(단)
合(匣:見:합)	合(匣:見:합)給(見:급)答(端:답)拾(禪:습)塔(透:탑) 搭(端:탑)(透:탑)盒(匣:합)蛤(見:합)恰(溪:흡)洽(匣:흡)
曷(匣:갈)	渴(溪:갈)葛(見:갈)喝(影:갈)竭(群:갈)褐(匣:갈)鞞(匣:갈) 揭(見:溪:게)偈(群:게)謁(影:알)歇(曉:혈)靄(影:애)
咸(匣:함)	咸(匣:함)感(見:감)減(匣:감)箴(章:잠)鍼(章:침)喊(匣:함) 緘(匣:함)鹹(匣:함)憾(匣:감)
區(影:溪:구)	區(影:溪:구)歐(影:구)驅(溪:구)鷗(影:구)嘔(影:구)嶇(溪:구) 毆(影:구)謳(影:구)軀(溪:구)樞(昌:추)
央(影:양)	殃(影:양)怏(양)殃(影:양)鴛(影:양)英(影:영)映(影:영)映(影:영) 瑛(影:영)
玄(匣:현)	牽(溪:견)弦(匣:현)絃(匣:현)炫(匣:현)眩(匣:현)銜(匣:현) 鉉(匣:현)
亥(匣:해)	刻(溪:각)該(見:해)咳(匣:해)駭(匣:해)骸(匣:해)核(匣:핵) 劾(匣:핵)
韋(雲:위)	偉(雲:위)圍(雲:위)違(雲:위)緯(雲:위)衛(위)諱(曉:휘)
皇(匣:황)	凰(황)煌(황)遑(황)徨(황)惶(황)
同(定:동)	洞(定:동)桐(定:동)銅(定:동)胴(定:동)筒(定:통)
單(端:常:단:선)	簞(端:단)禪(常:선)戰(章:전)闡(昌:천)彈(定:탄)憚(定:탄)
兌(定:태)	兌(定:태)說(書:설)稅(書:세)悅(以:열)閱(以:열)銳(以:예) 脫(定:탈)
者(章:자)	都(端:도)堵(端:도)屠(定:도)賭(端:도)賭(端:도)奢(書:사) 晷(書:서)署(書:서)緒薯(常:서)煮薯(端:저)箸(知:저)豬(知:저) 諸(章:제)曙(常:서)躅(澄:저)
勺(章:常:작)	勺(章:常:작)約(影:약)酌(章:작)灼(章:작)芍(常:清:知:端:匣:작) 的(端:적)鈞(端:조)杓(常:幫:端:滂:표)豹(幫:표)葯(影:약)

僉(淸:침)	僉(淸:침)儉(群:검)劍(見:검)檢(見:검)斂(來:림)殮(來:림)險(曉:협)驗(疑:협)
丁(知:端:정)	訂(定:端:透:정)汀(透:정)町(透:정)酊(端:정)釘(端:정)頂(端:정)成(常:성)城(常:성)盛(常:성)誠(常:성)晟(常:성)亭(定:정)停(定:정)
重(澄:중)	動(定:동)董(端:동)種(章:중)鍾(章:중)腫(章:중)踵(章:중)衝(昌:충)
兆(澄:조)	兆(澄:조)挑(透:도)逃(定:도)桃(定:도)跳(定:도)姚(以:요)眺(透:조)
且(精:淸:차)	查(崇·莊·從:사)沮(精:지)咀狙詛助(崇:조)祖(精:조)租(精:조)組(精:조)粗(從:조)阻(莊:조)
召(澄:常:소)	昭(章:소)紹(常:소)沼(章:소)邵(常:소)詔(章:조)招(章:초)超(초)貂(초)照(조)
壽(常:수)	壽(定:도)燾(定:도)禱(도)鑄(章:주)疇(주)躊(주)
靑(淸:청)	猜(淸:시)情(從:정)精(精:정)靜(從:정)睛(精:정)靖(從:정)淸(淸:청)晴(從:청)請(從:청)
𦏧(從:진)	殘(從:잔)棧(잔)盞(從:잔)錢(전)箋(전)餞(從:전)淺(淸:전)踐(從:진)賤(從:진)
占(章:점)	店(점)點(점)粘(점)霑(점)站(참)帖(첩)貼(첩)砧(침)
佳(章:추)	誰(常:수)唯(以:유)惟(以:유)維(以:유)焦(精:초)推(昌:추)椎(澄:추)錐(章:추)稚(澄:치)淮(匣:회)隹(수)樵(從:초)蕉(精:초)(章:초)
支(章:지)	支(章:지)技(群:기)伎(群:기)妓(群:기)岐(群:기)枝(章:지)肢(章:지)
夔(淸:준)	俊(전)俊(준)竣(준)峻(준)浚(준)竣(준)駿(준)
倉(淸:창)	創(창)蒼(창)滄(창)愴(창)槍(창)瘡(창)艙(창)
辰(常:진)	脣(船:순)晨(常:船:신)娠(신)蜃(신)宸(신)振(진)震(章:진)
至(章:지)	室(실)姪(질)窒(질)桎(질)致(치)臆(질)緻(치)
卒(精:淸:졸)	猝(졸)粹(수)悴(취)萃(취)醉(취)翠(취)擘(취)
蜀(常:촉)	獨(독)屬(속)燭(촉)觸(촉)濁(탁)囑(촉)
朱(章:주)	殊(수)洙(수)銖(수)株(주)珠(주)誅(주)
眞(章:진)	慎(신)墳(전)顛(전)鎮(진)嗔(진)

12) 본고에서 해성자의 통전 조례는 중고한자음의 통전조례를 말하고 실례로 든 한국한자음은 현대의 한자음이므로 서로 시대적 차이에 의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河野六郎의 《韓國漢字音の研究》(李珍昊 譯註, 역락, 2010)의 ‘聲類’ 부분을 살펴보면

2) 비음과 같은 부위 파열음

소리부	해성자
莫(明:모)	幕(막)漠(막)膜(막)寞(막)募(막)慕(모)暮(모)模(모)撲(모)糶(모) 謨(모)慕(묘)
免(明:면)	晚(만)挽(만)挽(만)輓(만)勉(면)冕(면)俛(면)
亡(明:망)	妄(망)忙(망)忘(망)望(망)茫(망)盲(맹)茫(망)
文(明:문)	文(明:문)虔(群:긴)紊(明:문)汶(明:문)蚊(明:문)紋(明:문) 旻(明:민)旻(明:민)旻(明:민)閔(민)玼(幫:반)

3) 마찰음

소리부	해성자
尙(禪:상)	堂(定:당)當(端:당)黨(端:당)棠(定:당)常(禪:상)裳(禪:상) 嘗(禪:상)賞(書:상)掌(章:장)敞(昌:창)螳(定:당)償(禪:상) 廠(昌:창)撐
失(書:실)	失(章:실)佚(余:일)秩(澄:질)帙(澄:질)跌(定:질)迭(定:질) 嫉(從:질)
肖(心:초)	削(心:삭)屑(心:설)消(心:소)宵(心:소)逍(心:소)趙(澄:조) 哨(清·心:초)梢(生:초)硝(心:초)稍(生:초)
昔(心:석)	惜(석)鷄(작)措(조)借(차)錯(착)醋(조)籍(적)
生(生:생)	牲(생)甥(생)性(성)姓(성)星(성)旌(정)醒(성)
旬(邪:순)	旬(邪:순)殉(邪:순)洵(心:순)珣(순)荀(心:순)筍(心:순)絢(曉:현)

4) 변음

소리부	해성자
寮(료)	僚(료)僚(료)療(료)寮(료)療(료)瞭(료)遼(료)
令(來:령)	令(來:령)冷(來:령)零(來:령)領(來:령)玲(來:령)齡(來:령)命(明:명)嶺
立(來:립)	立(來:립)拉(來:립)笠(來:립)粒(來:립)泣(溪:읍)翊(以:익)翌(以:익)

한자음이 한국에 전래되면서 대부분 위에 제시한 박병채 선생의 한글음 대응관계표를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본고는 한글 초성의 해성통전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위에서 제시한 현대한국음의 초성으로도 충분히 통전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이를 통해 비교하였음을 밝혀둔다.

5) 以모

소리부	해성자
由(以:유)	由(以:유)袖(邪:수)油(以:유)柚(以:澄:유)宙(澄:주)紬(澄:주)胃(澄:주)抽(徹:추)軸(澄:축)
兪(徹:以:유)	兪(余:유)輸(書:수)愈(以:유)噓(以:유)揄(以:유)榆(以:유)諭(以:유)諭(以:유)癒(透:유)
台(以:透:태)	台(透:태)治(以:야)怡(以:이)治(澄:치)始(書:시)怠(定:태)殆(定:태)胎(透:태)颱(定:태)跽(定:태)
羊(以:양)	羊(以:양)姜(見:강)祥(邪:상)詳(以:邪:상)庠(邪:상)翔(邪:상)洋(以:邪:양)養(以:양)樣(以:양)恙(以:양)癢(以:양)
湯(以:양)	湯(書:透:탕)揚(以:양)陽(以:양)楊(以:양)瘍(以:양)場(澄:장)腸(澄:장)暢(徹:창)蕩(定:탕)傷(書:상)觴(書:상)嗚(以:양)
予(以:여)	予(以:여)序(邪:서)杼(船:서)(邪:서)舒(書:서)野(禪:야)預(以:예)豫(以:예)餘(以:여)
譯(以:역)	釋(書:석)譯(以:역)驛(以:역)繹(以:역)鐸(定:탁)澤(澄:택)擇(택)
甬(以:용)	甬(以:용)誦(邪:송)勇(以:용)涌(以:용)踊(以:용)通(透:통)痛(透:통)桶(透:통)

2. 한국 한자음의 특수한 諧聲通轉 현상

1) 복성모의 흔적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한국한자음이 ‘諧聲通轉條例’의 원칙과 부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다섯 가지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通轉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상고의 복성모음에서 분화되어 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고음에 복성모가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관점은 또한 해성자의 해성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주변 한자 사용국의 한자음 분화현상 역시 이러한 복성모의 존재를 방증하는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복성모는 세 가지 종류¹³⁾로 해성자의 한국 이독음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 해성자 이독음에 나타나는 경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C+l, C+r 類

여기서 C는 과열음, 마찰음, 비음 등의 輔音을 나타내고 l과 결합하여 [k] [p] [t] [g] [b] [d] [m] 의 복성모를 만들어 낸다. 또한 r과 결합하여 [tsr] [tshr] [dzr] [sr] [tr] [thr] [dr] 의 복성모를 만든다.

여기에 속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方(幫:방)(並:방) ⇔ 楞(來:릉)
- ▶白(백) ⇔ 樂(來:락)磔(來:력)
- ▶各(見:각)恪(각)客(溪:객)格閣(見:각) ⇔ 洛(來:락)絡(來:락)烙(來:락)
酪(來:락)駱(來:락)略(략)落(략)
- ▶監(見:감)鑑(見:감) ⇔ 藍(來:람)濫(來:람)覽(來:람)籃(來:람)
- ▶揀(見:간)(來:간)諫(見:간) ⇔ 煉(련)練(來:련)鍊(來:련)蘭(來:란)
欄(來:란)爛瀾(來:란)
- ▶儉(群:검)劍(見:검)檢(見:검) ⇔ 斂(來:렴)殮(來:렴)

둘째, S+C 類

여기서 S는 /s,z,x/의 마찰음은 나타내고 C는 과열음과 비음 등의 輔音을 나타낸다. 즉 이러한 종류는 [st] [sk] [sm] [sl] [zt] [zk] [zm]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少(書:소)沙(山:사)紗(山:사)省(山:성) ⇔ 妙(明:묘)渺(明:묘)
抄(初:초)秒(明:초)炒(初:초)娉(心:사)

셋째, N+C 類

13) 林燾·耿振生, 《音韻學概要》(북경, 商務印書館, 2008), 251~254쪽 참고. 이 책에서는 복성모의 종류를 네 가지로 분류하여 C+l類와 C+r類를 서로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l'과 'r'의 발음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합쳐서 설명하였다.

IV. 나가기

같은 소리부를 가지고 있는 해성지는 비슷한 독음을 가지리라 생각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현대의 발음에서 유사성이 그다지 없는 독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이는 고대에는 서로 같은 음이었다가 이후 음 자체의 변화, 속음이나 방언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점점 분화되고 변화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발음의 변화, 발전에는 언제나 일정한 규율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어서 이를 귀납한 것이 바로 ‘諧聲通轉條例’이다. 한국 한자음은 중고시기의 한자가 수입되어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고음의 ‘諧聲通轉條例’가 대부분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규율을 이해하고 한자의 독음을 살펴보면 현대의 한자음을 쉽게 이해하고 유출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諧聲通轉條例’에 부합되는 경우를 제외한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의 한자음에 상고시기 음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은 아마도 한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한자가 전해져 왔다기보다는 대규모 전쟁이나 혹은 문화교류의 큰 흐름 속에서 몇 차례에 걸쳐 한자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인다. 상고시기에도 한자가 유입되었으며 복성모 등은 그 흔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고시기 이후로 또다시 대거 유입된 한자와 한자음에 의해 이전의 한자음은 정치적, 학문적 이유 등으로 인해 점점 사라지고 변화하였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한자음은 한국의 언어 환경에 맞추어 또다시 변화하든지, 혹은 관습적인 오독음이 굳어진 채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본고의 연구대상이 된 글자는 약 1000여자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좀 더 광범위한 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더 진행시켜 한국한자음에 대한 총괄적인 통계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성운학의 분야에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參考文獻】

- 蔡夢麒, 《廣韻校釋》, 岳麓書社, 2007년.
 林燾·耿振生, 《音韻學概要》, 260~265쪽, 商務印書館, (2008)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
 河野六郎 著·李珍昊 譯註, 《한국한자음의 연구》, 역락, 2010.
 강식진, 〈번역노걸대막통사의 “우음” 성모체계〉; 《중국학》 제3집, 1986.
 강식진, 〈중국어 성모의 십사세기 이후 변화연구〉; 《중국학》, 제5집, 1989.
 정경일, 《한국운서의 이해》, 아카넷, 2003.
 정경일, 〈한자음의 국어사적 위치〉; 《한자한문연구소》, 2006.
 박병채, 〈한국한자음의 모태와 변천〉; 《국어생활》, no 8, 1987.
 박병채, 〈고대국어의 音韻體系 再構 試論〉; 《民族文化研究》, no5, 1971.
 李敦株, 〈한국 한자음의 특성〉; 《새국어생활》 11집, 2001년.
 나도원, 〈한자학습에 중심이 되는 기초자 고찰〉; 《중국언어연구》 제32집, 2010.7.
 朴性源, 《華東正音通釋韻考》, 1747.

【中文提要】

語言相比文字更具有流動性。雖然文字更具有穩定性，但漢字在韓國做爲記錄手段起了重要作用，但它不是日常生活語。正因爲漢字在韓國成爲重要的記錄手段，我們也可以通過中國語音韻變化的比較不難推斷漢字仍然保持着當時的大部分中古漢語音。由此，韓國、日本、越南等東亞漢字文化圈的國家的漢字語研究在聲韻學研究方面站重要的比重。

若仔細察看韓國的諧音字，大部分諧音字具有能够重構諧音歸納的規則和相類似的形態。

同時，韓國諧音字的譯讀音現象可以旁証韓國漢字的傳來時期是已經上古時期漢字發生音變后的中古時期。所以，用韓文漢字音學習諧音字將起到事半功倍效果。正如本文所云，韓文漢字音之間的諧音關係具有如下幾個規則。

第一，唇音系列：ㄱ, ㅋ, ㆁ 類

第二，牙音跟喉音系列：ㄷ, ㅌ, ㄹ 類

第三, 舌音跟齒音系列 : ㄸ, ㅌ, ㄴ, ㄷ, ㅌ 類

另外有腹聲母的影響

第一, C+l, C+r 類

第二, S+C 類

第三, N+C 類

在韻母上發生了入聲調的陰平韻, 陽平韻相互對傳關係。

【主題語】

諧聲字, 諧聲通轉條例, 上古音, 通轉, 中古音

투고일: 2012. 7. 15 / 심사일: 2012. 7. 20~8. 5 / 게재확정일: 2012. 8. 10